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4월 개관 박차

목포시 25일까지 명칭 공모
푸드존·관광플랫폼 등 조성
음식판매시설 운영자도 모집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조감도.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가칭)의 명칭을 공모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의 맛과 관광, 역사, 문화 등의 콘텐츠를 새롭게 탄생할 옛 목포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의 의미와 정체성을 부각할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응모건수 제한은 없다. 시상금은 최종 선정작 1건에 100만원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mralkjs@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부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작을 오는 3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옛 목포세관창고는 큰 창고(661.16㎡), 작은 창고(330.58㎡), 야외공간 등으로 구성됐는데 시는 오는 4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목포세관은 지난 1897년 10월 1일 목포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 시작했으며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지금의 위치(항동 6-33)로 이전했다. 이후 1968년 삼학도 이전 전까지 관세업무 수행했다.

시는 역사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6월 2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목포세관 터와 창고 2개 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큰 창고를 음식의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랩과 스몰푸드존으로 조성한다.

또 작은 창고는 옛 목포세관 역사전시 공간 및 관광 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플랫폼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복합문화공간의 큰 창고에 설치될 스몰푸드존(음식판매시설) 운영자도 오는 3월 1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는 스몰푸드존을 목포 미식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선정된 운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목포 9미를 활용한 음식과 주전부리 3종 세트를 비롯해 음료(차, 커피)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멸종위기 '진노랑상사화' 영광군, 조직배양 성공



조직 배양에 성공한 진노랑상사화.

영광군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진노랑상사화'의 인공증식증명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진노랑상사화는 영광군 불갑사 주변 등 극히 일부 지역 산지 내 산기슭이나 계곡에만 자생하지만 희귀종이고 인공번식이 어려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기관 허가를 받아 진노랑상사화 조직배양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그 결과 실험실에서 증식포까지의 순화 기술과 증식 개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발급된 인공증식증명서는 진노랑상사화를 조직배양 증식해 얻은 결과로 진노랑상사화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종 2급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인공 증식된 개체는 자생지 복원 및 개화기 조절 시험의 기본식물로 쓰일 예정"이라며 "영광군이 상사화 자생지로서의 차별화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

영암군 신중년 일자리사업 2억여원 투입 27명 일자리

영암군이 퇴직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한 '2022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도비 2억4700만원이 투입돼 누리과정지원, 급식코디네이터 등 2개 분야에서 총 27명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업무와 관련된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재)전반인력개발원 및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아동관련 자격 및 경력 보유 신중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해 학습 및 놀이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는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21일부터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급식코디네이터 사업은 지난 1월 참여기관 및 참여자를 모집·선발, 12개 사회복지기관에 조리 관련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신중년 12명을 파견해 급식·조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사랑의 메시지만 전하세요”

신안 퍼플섬 '어린왕자 전화기'
어린왕자와 찰칵 이색 포토존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에 이색적인 공중전화기가 설치돼 화제다.

일명 '어린왕자가 운영하는 전화 하우스(Telephone House)'이다.

별나라 어린왕자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전화기 사용 용도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등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하도록 하고자 신안군이 설치했다.

어린왕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인 점에 착안해 퍼플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린왕자 전화기

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보자는데 의미를 뒀다.

사용 방법은 전화기 박스 안에 설치된 어린왕자 동전함에서 100원을 꺼내 전화기 투입구에 넣고 통화한 후 전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100원이 나온다.

100원을 다시 어린왕자 동전함에 넣어두면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도 이색적이다.

누군가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어린왕자와 사막여우가 다정한 모습으로 퍼플섬을 바라다보고 있는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

관광객들이 사막여우 등에 앉아 어린왕자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친밀감이 느껴진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퍼플섬에 설치된 어린왕자 전화기와 포토존.



완도소방서 직원이 비화재 경보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개발한 '비화재 경보 및 중점관리대상 관리카드 모바일 앱'을 시연해 보고 있다.

<완도소방서 제공>

완도소방, 비화재 경보 모바일앱 개발

오인신고 소방력 낭비 예방

완도소방서가 비화재 경보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비화재 경보 및 중점관리대상 관리카드 모바일 앱'을 전남 최초로 개발해 활용에 들어간다.

비화재 경보는 건축물 내 화재감지기가 먼지, 습기 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해 경보가 울리면 이를 화재로 착각해 신고하는 경우다.

비화재 경보가 반복되면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경보설비를 꺼두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완도소방서는 비화재 오인신고 발생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출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예방안전과 TF팀과 의무소방원이 공동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모바일 앱은 비화재 경보로 인한 출동현황 파악과 중점관리대상 관리카드, 관계인 자동 전화연결 시스템, 비화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 업로드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이나 비화재 경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물의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설비 점검과 안전컨설팅을 받을 실질적인 비화재 경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